

내년 성장률 전망 2.1%... 트럼프 2기 출범 등 리스크 변수

산업연, 2025 경제·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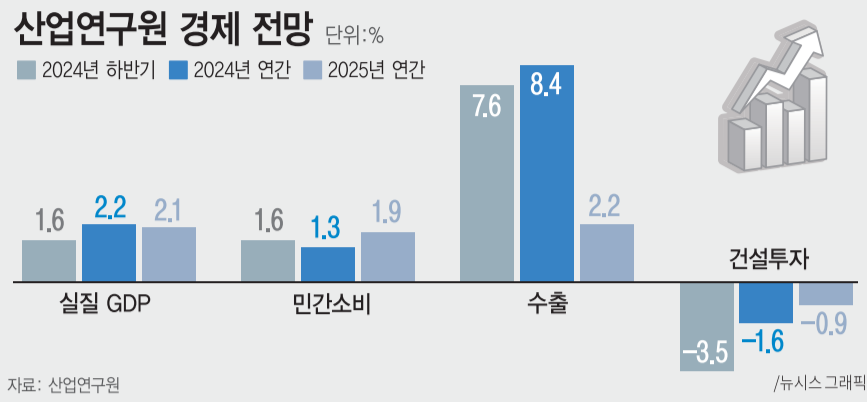
수출 성장세·설비투자 개선에도 소비·건설투자 부진에 회복 악화 국제유가는 배럴당 75달러 예상 원/달러 환율 연간 1345원 전망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소폭 내린 2.1%로 내다봤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해 성장 발목을 더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와 설비투자의 개선에도,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내수의 더딘 회복이 발목을 잡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는 것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국제통화 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각각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해 발표한 바 있다.

세계경제는 올해 수준 성장률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세와 통화정책 완화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지역 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 성장세 약화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의 비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증산과 OPEC+의 높은 생산여력 등 공급 요인이 더해져 올해보다 낮은 배럴당 75달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내년 상반기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 등 달러 약세 요인과 무역 수지 흑자 지속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작용하면서 완만하게 하락해 연간 1345원 대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 실질소득 증

대, 물가안정 등 소비 여건 개선으로 올해(1.3%)보다 높은 1.9%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 호조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올해(1.2%)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2.9% 증가로 예상됐고, 건설투자는 금리 하락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 영향으로 올해(-1.8%)에 이어 0.9% 감소하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통관 기준)은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하겠으나, IT 전방산업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등 IT 부문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면서 2.2% 증가하고 무역 흑자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확대된 487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간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 정책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감소를 유발하면서, 전체 수출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은 2021~2023년 평균 수출액 기준 대비 최소 8.4%~ 최대 14.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기계류, 반도체 등에서 대체 효과가 크게 발생하며, 같은 기간 약 2.2~2.6%포인트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확실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은 맞다"면서도 "거시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이후로 부침이 많은 경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서는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전체에 공포가 지배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믿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맨앞줄 왼쪽 일곱번째)과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미쓰비시상사 상담역·맨앞줄 왼쪽 여섯번째) 참석자들이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한일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한 뜻'

日 오사카서 회장단 회의 개최

최태원·양재생 등 韓측 14명 참석 "미래 100년 비전제시 프로그램 제안"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공급망·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이날 한일 양국 간 지난 60년 동안 성과와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일본 오사카 임페리얼 호텔에서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제13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한국 기업인 14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을 비롯해 9개 지역상의 회장을 포함한 13명의 일본 기

업인이 참가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 양국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내년 한일 양국 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일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과거 60년간의 양국 경제협력에 되돌아보고 미래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상공회의소가 주도하고 주요 경제단체들이 함께 해서 양국의 경제계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럼 개최와 더불어서 그간의 경제협력 역사와 성공사례를 담은 전시회를 통해서 6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협력의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며 "협력은 곧 경쟁력의 원천이니 한일 상의가 폭넓은 기반으로 수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마무리 했다.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도 개회사에서 저출산 고령화, 탄소중립, 공급망 강화와 같은 공통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양국이 경쟁에서 협력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경제협력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상의는 에너지, 공급망, 첨단기술 등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협력 유망분야를 모색하고 지역상의 간 협력 모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상의 부회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한일 경제협력과 경제계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밖으로는 불안한 국제정세, 안으로는 구조적 성장한계 직면이라는 내외의 환의 상황에서 민간 경제협력만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한일 경제협력 유망분야로 수소산업, 첨단제조업, 관광업 등이 긍정적인 분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도리이 신고 오사카상의 회장도 "한일 양국의 강점을 활용해 제3국에서 에너지·자원개발, SOC,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 상의는 공동성명에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유망 분야 발굴 ▲관광, 문화교류 등 국민교류 확대 ▲2025 APEC CEO Summit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등이 담겼다.

/김서연 기자 seoh@

서울시, '한강버스' 2척 실물 첫 공개

경남 사천서 진수식 진행

서울시가 새로운 수상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의 실물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경남 사천시 은성중공업 부근 행사장에서 한강버스 2척에 대한 진수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수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한강버스 운영 사업자 등이 참석해 한강버스의 안전한 운항을 기원했다.

한강버스는 항주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쌍동선 형태로 제작됐다. 시 관계자는 "한강버스는 일출, 낙조 등 다양한 아름다운 강의 색과 빛을 투영할 수 있도록 흰색 기본 바탕을 적용했다"며 "여기에 청량감 있는 파란색을 그래픽과 함께 표현해 반짝이는 운슬과 시원한 물살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건조된 한강버스의 추진체가 배터리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배터리 시스템 내부에 가스 센서를 설치해 화재 징후를 미



서울시가 25일 경남 사천시에서 열린 '한강버스 안전 기원 진수식'에서 한강버스의 실물을 공개했다. /서울시

리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터리 과충전 방지 ▲배터리셀 연쇄 폭발 방지 ▲열 폭주시 가스 분사 소화 ▲유사시 배터리 합체 침수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하이브리드 추진체 시스템의 95% 이상을 국산화해 부품 수급 지연 및 과도한 A/S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가 서울시민이 매일 쾌적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교통 수단으로 거듭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울산-中 광저우, 수소 대표도시 성장 목표"

>> 1면 '정의선, 글로벌 수소...서 계속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는 독자기술로 개발한 첫 수소전기차를 울산 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했으며, 광저우는 해외에서 현대차 최초이자 유일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기지"라며 "두 도시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두 도시 모두 글로벌 수소 대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31일 경기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클리어리커

미티드 : 올곧은 신념' 행사를 열고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을 최초 공개한 바 있다. 이니시움은 현대차가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인 차세대 승용 수소전기차의 상품과 디자인 방향성을 담은 콘셉트 모델이다.

이니시움은 수소탱크 저장용량을 늘리고 공기역학적 바퀴를 적용해 650km 이상의 주행 가능거리를 확보했으며, 연료전지시스템과 배터리 성능을 높여 최대 150kW의 모터 출력을 구현하는 등 성능을 대폭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양성운 기자 ysw@